우리 복지관은 지금 18. 영등포구1인가구지원센터

함께 달리며 일상에 관계를 더하다



'01러닝클럽' 참가자들이 달리기에 앞서 전문 강사와 함께 준비 운동을 하는 모습.

요즘 SNS에서 '러닝크루'라는 말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달리기가 단순한 운동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함께 뛰며 성장을 도모하는 모습이 청년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혼자 사는 삶은 자유로운 만큼 관계가 옅어지기 쉽다. 특별한 계기 없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어렵고, 고립감을 느끼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에 영등포구1인가구지원센터는 모든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러닝을 복지 사업과 접목해 '01러닝클럽'을 만들었다.

'01러닝클럽'이라는 이름에는 소박하지만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다. '0'은 영등포구를, '1'은 1인가구를 뜻한다. 영등포구 1인가구를 위한 러닝 모임이라는 의미다. 2023년 4월 건강과 친구를 모두 챙길 수 있는 '건강 줍기, 친구 줍기, 줍줍'을 담은 '줍깅클럽'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은 2024년 '러닝클럽'을 거쳐 지금의 '01러닝클럽'으로 이어졌다. 누적 참여 인원은 약 800명에 이른다.

매년 두세 차례 열리며 기수당 3~4주 과정으로 운영된다. 러닝 경험 여부와 희망하는 달리기 속도에 따라 입문자부터 숙련자까지 여러 그룹으로 나눠 이뤄진다. 한 기수마다 4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하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여의도공원에 모여 함께 뛰며 활력을 나누고 있다.

참가자들은 2.5㎞의 공원 코스를 두 바퀴 돌아, 총 5㎞를 함께 달린다. 단순히 달리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 강사가 함께해 운동 전후 스트레칭과 보강 운동, 부상 없이 오래 달릴 수 있는 자세 등을 교육한다.

각 그룹에는 봉사자가 '페이스메이커'로 함께 뛰며 속도를 조절하고 맞춰주기에 러닝이 처음인 참가자도 낙오 없이 완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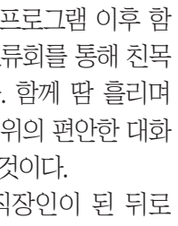
'01러닝클럽'의 매력은 달리기가 끝난 뒤에도 있다. 서로가 친해질 수 있는 관계망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이후 함께 저녁을 먹는 교류회를 통해 친목을 이어가고 있다. 함께 땀 흘리며 쌓은 시간이 식탁 위의 편안한 대화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한 참가자는 "직장인이 된 뒤로 운동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30분 동안 멈추지 않고 뛸 수 있다"며 "한 번 성공하고 나니 다른 것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욕심이 난다"고 말했다. 다른 참가자도 "다른 사람과 함께 뛰며 친분을 나누게 돼 1인가구로서 큰 도움이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와 함께 센터는 참여자들과 함께 '프리런(Free Run)'이라는 정기 모임을 꾸려 매주 수요일 다시 모여 함께 달리는 인연을 잇고 있다.

'01러닝클럽'은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함께 뛰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밥을 먹는 일상의 반복일 뿐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함께 달리는 우리의 동료가 된다. 기수가 끝나도 관계가 이어지는 점은 프로그램이 단발성 행사에 머물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센터는 앞으로도 이러한 작은 연결을 통해 1인가구가 지역사회 안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일상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고자 한다.



박상현
영등포구1인가구 지원센터 주임

대만불교 포교일기 ⑨ 불광산의 AI 혁신과 인간불교

AI, 검증·활용으로 불법 밝히다

〈佛法〉

AI, 불교 미래 밝힐 새 방편으로 재조명

전집 DB화로 불광AI 구축, 편찬 혁신도

정통성·승가 윤리 중시, 정법 준수 검증

불광산에서는 매년 음력 7월 22일 공승법회가 거행되고, 이어서 전 세계 불광산의 사부대중이 모이는 도중강습회(徒眾講習會)라는 연수교육이 있다. 올해 연수 기간 가장 뜨겁고 깊이 있게 다뤄진 주제는 단연 '인공지능(AI)'이었다. 세상이 AI의 급격한 발전에 경탄과 우려를 동시에 보내고 있을 때, 불광산의 스님과 봉사자들은 AI를 불교의 미래를 밝힐 새로운 '현대적 방편(方便)'으로 바라보며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불교의 길고 긴 역사 속에서 기술의 수용은 결코 경계의 대상이 아니었다. 과거 〈팔만대장경〉을 새기던 목판인 쇄술이 경전의 대중화를 이끌었고, 20세기의 라디오와 인터넷이 시공간을 초월한 전법의 무대가 되었듯, 오늘날의 AI 기술 또한 부처님의 지혜를 세상 구석구석으로 확장하는 거룩한 도구로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불광산의 창건주 성운 큰스님(星雲大師)께서는 미래 불광산의 6대 발전 과제 중 하나를 정보화라고 하셨던 만큼 불광산이 추진하는 AI 혁신은 단순히 세속의 유행을 좇는 기술 도입이 아니라 인간불교(人間佛教) 정신의 현대적 구현이었다.

실제로 불광산은 성운 큰스님의 평생 유산인 〈성운대사전집〉 395권을 비롯해 서예, 음성, 포교 역사를 입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불광산 고유의 정체성을 담은 '불광AI(FoGuang AI)'의 기틀을 다졌다. 불교학의 정수인 〈불광대사전〉의 영문판 편찬 작업에도 AI 알고리즘을 도입해 방대한 교리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나아가 포교와 교육 현장에서도 다양한 응용이 이뤄졌다. 다국적 학생들이 함께 수행하는 불학원(佛學院) 수업과 글로벌 분원의 법회에서는 AI 기반 실시간 통역 플랫폼이 활발히 쓰인다. 청중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만 스캔하면 스님의 법문이 각자의 언어로 실시간 자막 처리돼 전달된다.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전 세계에 '무국경 포교'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종무 행정 현장에서는 스님들이 AI 코딩 도구를 활용해 행사 관리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며, 사찰 운영을 지능화하고 행정 부담을 크게 줄였다.

그러나 불광산이 AI를 도입하며 가장 경계하고 강조하는 바는 따로 있다. 바로 '속도'보다 중요한 '정통성'과 '승가의 윤리의식'이다. AI가 교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환각 현상을 막기 위해,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학습 데이터를 철저히 검증했다. 또한 AI로 만들어진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콘텐츠 제작을 엄격히 금지하며, 스님들에게 기술의 편리함 뒤에 숨은 정어(正語)와 정법(正法)의 계율적 규범을 더욱 강하게 요구한다.

그 결과 불광산의 엄격한 로드맵이 만들어졌다. 아무리 뛰어난 AI 기술이라도 즉시 대중에 공개하지 않는다. '내부 연구진 검증 → 출가 승단 검증 → 신도 조직 시범 운용 → 일반 대중 공개'라는 신중한 단계적 개방을 통해 교리의 무결성을 지켜낸다.

AI는 훌륭한 교화의 방편이지만, 인격적인 따뜻함과 마음의 참된 깨달음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적 방편을 지혜롭게 다루되, 그 궁극적 목적은 우리 내면의 '부처님의 지혜'를 밝히는 데 있음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불광산이 보여주는 지혜로운 AI 기술의 길이다.



혜호 스님
서울 불광산사 주지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㉞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가을볕



보광사 만세루.

보광사 만세루 툇마루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탁월하다. 절 마당을 거닐다 보면, 쇠붙이가 자석에 끌리는 것처럼 거의 자동적으로 만세루 툇마루에 엉덩이를 붙이게 된다. 우리나라 절집을 통틀어서 가장 친화력이 높은 툇마루가 아닐까 싶다. 처마에 걸린 목어도 발길을 이끄는 데 단단히 한몫을 한다.

보광사 만세루의 목어는 목어계의 슈퍼스타다. 본래 유명한 목어였는데, 소설가 이외수의 글과 화가 정태련의 물고기 세밀화가 만난 책 〈하악하악〉의 표지 모델이 됨으로써 유명세가 더해졌다.

보광사 만세루는 '대방(大房)'으로도 일컬어진다. 1869년(고종 6) 세 번째로 중건돼 '염불당'으로 쓰였는데, 방과 부엌을 함께 갖춘 생활공간이기도 했다. 그래서 방문은 장식을 하지 않은 띠살문이다. 빛을 들이기 좋으면서도 튼튼한, 실용에 충실한 문이다. 만자살로 짠 문도 보이는데, 궁궐 상궁들의 시주로 건물을 지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왕실 사람들이 여기서 먹고 자면서 염불을 했던 것이다.

보광사 만세루는 서쪽을 보며 앉은 대웅보전을 마주 보고 있다. 대기가 투명해지는 이 계절, 만세루 툇마루에는 세상에서 가장 곱고 다정한 가을볕이 고인다.

손영자 작가

